

『詩經』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Ⅱ)

- 여자복식과 직물을 중심으로 -

김 문 숙 · 이 순 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f Clothing Recorded in the 『the Odes(詩經)』(Ⅱ)

- About the Women's Clothing & Textiles -

Moon-Sook Kim · Soon-Won Lee*

Graduate school, Dep't. Clothing & Textile, Seoul Nat'l Univ.

Professor, Dep't. Clothing & Textile, Seoul Nat'l Univ.*

ABSTRACT

This paper studies women's clothing and textiles recorded in the 『the Odes』, and refers research materials on the old commentaries about the 『the Odes』 and the various kinds of records and remains.

The results regarding women's clothing in the 『the Odes』 are as follow:

1. Ti-i(翟衣), Chan-i(展衣) are the women's ceremonial dresses. Ti-i is a kind of the court dress and the shape is a long dress embroidered with pheasant. Chan-i belongs to the lower grade compared with the six ritual dresses worn by the queen and is made of Hu(黼) that is a kind of the white soft-wrinkled fabrics.
2. A women's I-Shang(衣裳) is composed of a blouse and a skirt. It is the classic style before the Shên-I(深衣) appears in China. Also we find that they use the standard colours for a blouse and the intermediate colours for a skirt in Chou period.
3. Chiung-I(黻衣), Chiung-Shang(黻裳) and Hsieh-Pen(緹裋) are a kind of the robe put over the former garment made of Chin(錦) not to display the elegance.
4. Fu(副), Chên-Fa(鬢髮), Pei(被) and Ti(髻) are a kind of women's wig. Ti(髻) and the six-Chia(六珈) are women's hair ornaments. Ch'i-Chin(綦巾) and Ju-Lü(茹蕙) are a kind of the working women's turbun.
5. The women's belt ornaments are classified into the practical things and the decorative things like those for men.

The results regarding fabrics in the 『the Odes』 are as follow:

1. The silk fabrics: There are Chin(錦), Hu(縠), Chou(縐), Tzū(縑), Su(素), Hsiu(繡), 縠.
2. The woolen fabrics: There is Ho(褐).
3. The linen fabrics: There are the hemp and the ramie in the remains of Chou period. Also there are Ch'ih(縑) and Hsi(縠) categorized in Ko(葛) fabrics.

Key Word : 여자복식(Women's costumes), 직물(Fabrics), 시경(『the Odes』)

I. 머리말

『시경』은 중국문학사 중 최초로 것으로 서주(西周)에서 춘추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민간가사가 채집·보존되어 있다. 이 시대의 복식을 연구하기 위한 문헌자료로는 『시경』외에 『주례』등의 자료도 있으나 이들 문헌은 대부분 귀족 예복을 묘사하고 있어 귀족 복식과 일반 서민들의 복식을 함께 고찰하기 위해서는 『시경』에 묘사된 복식을 연구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시경』의 복식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6편의 연작 논문이 발표되어 있으며¹⁾, 연구의 내용은 『시경』의 복식을 분류하여 고찰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시경』에 묘사되어 있는 각 복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시경』을 중국 고대복식연구의 1차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시경』에 묘사된 복식의 정체를 밝히고자 한다. 물론 연구범위가 『시경』으로 한정되어 주대의 복식문화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시경』이 주대의 다른 문헌에 비해 귀족복식과 일반서민의 복식 모두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편의 연구에 이어

『시경』에 묘사된 여자복식과 직물을 대상으로 원문과 함께 역대 주(註) 즉, 모형(毛亨)-정현(鄭玄)-주희(朱熹)의 각 복식에 대한 정의와 관련문헌, 그리고 당시의 유물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II. 여자복식의 종류와 분석

시경에는 남자복식에 비해 여자복식의 묘사가 적다. 이는 당시 사회상이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따라서 묘사의 대상이 된 인물이 남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시경 속의 여성복식을 크게 예복(禮服), 의상(衣裳), 경의(褻衣), 수식(首飾), 패식(佩飾)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예복(禮服)

여자예복과 관련된 시는 아래의 1편으로, 상복(象服)과 적(翟), 전의(展衣)가 묘사되어 있다.

象服是宜/玼兮玼兮 其之翟也/璫兮璫兮 其之展也
〈國風 鄘風 君子偕老〉

먼저 상복은 모전(毛傳)에 “상복은 장식이 있으

1) 김진구, “詩經의 服飾色彩에 관한 研究”, 한국생활과학연구 9호, 1991
 _____, “詩經의 服飾材料에 관한 研究”, 한국생활과학연구 9호, 1991
 _____, “詩經의 남자장식품의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10호, 1992
 _____, “詩經의 여자장식품의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10호, 1992
 _____, “詩經의 남자복식의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11호, 1993
 _____, “詩經의 여자복식의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12호, 1994

므로 귀한 것이다²⁾”라 있고 정전(鄭箋)에 “상복에는 유적, 길적이 있다³⁾”라 있어 상복은 왕후가 입었던 제복임을 알 수 있으나 어떤 연유에서 제복을 상복으로 부르게 되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왕후에게는 六服(禕衣, 揄狄, 闕狄, 鞠衣, 展衣, 褕衣, 素紗)이 있는데 이 중 제복에 해당하는 것이 禕衣, 揄翟, 闕翟으로 모두 상하연결의 장포(長袍)이다. 이들은 의복에 가해진 문양과 색으로 구별되는데, 위외는 검은색 비단으로 만들며 위에는 두꺼운 비단을 오려만든 오채휘조(五彩翬鳥)형의 문양을 붙여 장식한다. 유적은 청색이며 역시 오채휘문을 장식한다. 길적은 홍색이고 백색휘조문을 가식한다.⁴⁾

翟(翟) 역시 모전에 “유적, 길적, 우식의이다⁵⁾”, 정전에 “후백 부인의 복식이다. 유적이하로 왕후와

같다⁶⁾” 그리고 집전(集傳)에 “적의는 제복이니 비단을 오려 평의 모양을 만들고 채색으로 그려서 꾸밈을 한 것이다⁷⁾”라 있어 유적 이하의 적의에 해당하며 제복임을 알 수 있다.(그림 1)

전은는 모전에 “전은는 예복이다. 단곡으로 만들어 걸치는 것이다. 치의 좋은 것이 추로 여름에 번연을 만든다⁸⁾”라 있고 정전에 “후비의 육복에 전의가 있는데 촘촘한 백추치로 만든다. 여름에는 속옷으로 추치를 사용하는데 임금과 손님을 맞을 때의 성장한 차림이다⁹⁾”라 있어 전의에 대해서 고운 주름이 잡힌 직물인 붉은 색의 곡으로 만든다는 설명과 흰색의 추치로 만든다는 두 가지 설명으로 나누어 혼돈되는데 흰색이라는 견해가 통설인 것으로 보인다¹⁰⁾.(그림 2)



(그림 1) 揄狄·闕狄

출처 : 王圻·王思義 編集, 『三才圖會』, 上海古籍出版社



(그림 2) 展衣

출처 : 『三才圖會』, p.1499

- 2) 『毛詩正義』 鄘風 君子偕老, p.110 “象服 尊者 所以爲飾”
- 3) 『毛詩正義』 鄘風 君子偕老, p.110 “箋云 象服者爲揄翟闕翟也”
- 4) 『中國古代服飾巡禮』, 趙超·熊存瑞, 四川教育出版社, 1996, p.110
- 5) 『毛詩正義』 鄘風 君子偕老, p.110 “揄翟闕翟羽飾衣也”
- 6) 『毛詩正義』 鄘風 君子偕老, p.110 “箋云 侯伯夫人之服 自揄翟以下如王后焉”
- 7) 『詩經集傳』 上, p.123 “翟衣祭服 刻繪爲翟雉之形 而彩畫之 以爲飾也”
- 8) 『毛詩正義』 鄘風 君子偕老, p.111 “禮有展衣者以丹縠爲衣蒙覆也 縠之靡者爲縠是當暑裨延之服也
- 9) 『毛詩正義』 鄘風 君子偕老, p.111 “箋云 后妃六服之次展衣宜白縠縠之縠者展衣 夏則裏衣縠縠此以禮見於君及賓客之盛服也”
- 10) 趙超·熊存瑞, 앞책, p.111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中國喜劇出版社, 1986, p.52

김진구, “詩經에 나타나는 여자복식의 연구”, 한양대 생활과학연구지 12호, 1994, p.7

2. 의상(衣裳)

여자의 의상은 남자의 의상과 마찬가지로 두가지 양식, 즉 상의하상제와 의상연속제가 있다. 서주이전부터 남녀를 불문하고 상의하상이 분리된 형을 주로 많이 착용하였고 이후의 고습(袴褶)과 유군(襦裙) 등은 모두 이것이 변화된 양식이다. 춘추전국시대에 들어와 상의하상이 연속된 형태 즉 '심'의가 출현하였고 후세의 포(袍)나 삼(衫) 등은 이 심의가 변화된 것이다¹¹⁾.

시경에 묘사된 의상은 상하연속의 심의제가 아닌 상하가 분리된 의상이 묘사되어 있다.

綠兮衣兮 綠衣黃裏/綠兮衣兮 綠衣黃裏/綠兮絲兮 女所治兮 (國風 邶 綠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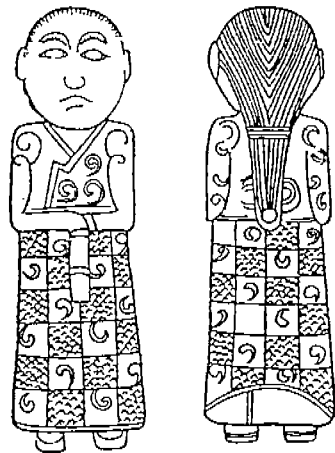
위 시에서 먼저 녹색황리는 녹색 저고리의 안감으로 황색을 댄 것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 집전에 "녹은 창색이 황색을 이긴 간색이고 황색은 정색이다. 간색은 천한데 이것으로 상의를 만들고 정색은 귀한데 이것으로 속옷을 만들었으니 이는 모두 제 자리를 잃었음을 말하는 것이다¹²⁾"라 있고 모전에 "녹은 간색이고 황은 정색이다¹³⁾"라 있어 간색인 녹색을 겉으로 하고 정색인 황색을 안으로 하는 것은 예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당시 상의하상의 색은 상의에 정색, 즉 청, 적, 황, 백, 흑을 사용하고 하상에 정색을 혼합한 간색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3. 경의(綾衣) · 경상(綾裳) · 설번(紵袷)

시경에 묘사된 여자복식 중 경의와 경상, 설번은 안에 입은 복식의 화려함을 가리기 위해 겉에 가하는 복식으로 그 용도가 같아 같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이 묘사된 구절은 다음과 같다.

碩人其頤 衣錦褻衣 (國風 衛風 碩人)
 衣錦褻衣 裳錦褻裳/裳錦褻裳 衣錦褻衣 (國風 鄘風 丰)
 嗟兮嗟兮 其之展也 蒙彼縹緜 是繼袷也 (國風 鄘風 君子偕老)

모전에 "금은 무늬가 있는 옷이다. 넉이 있고 존경받는 집안의 부인은 금의에 경을 가하여 앞을 가린다¹⁴⁾". "의금경상은 결혼하는 사람의 복식이다¹⁵⁾"라 있고 정전에 "경은 홑옷이다. 임금의 부인은 결혼시 적의를 입는다. 오늘날 의금에는 가리는 복식이 있다. 홑옷을 가하는 것은 그 문채가 너무 드러나기 때문이다¹⁶⁾". "경은 홑옷이며 꼭으로 하는



(그림 3) 春秋戰國時代 王雕像
 출처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p.70

11) 周汛, 高春明, 『中國歷代婦女裝飾』, 上海學林出版社, 1988, p.202

12) 『시경집전』 上, p.77 "綠 蒼勝黃之間色 黃 中央土之正色 間色 賤而以爲衣 正色 貴而以爲裏 皆失其所也"

13) 『毛詩正義』 邶 綠衣, p.74 "綠間色 黃正色"

14) 『毛詩正義』 衛風 碩人, p.128 "錦文衣也 夫人德盛而尊嫁則錦衣加褻裙"

15) 『毛詩正義』 鄘風 丰, p.176 "衣錦褻裳嫁者之服"

16) 『毛詩正義』 衛風 碩人, p.128 "箋云 褻禪也 國君夫人翟衣以嫁今衣錦者在塗之所服也 尚之 以禪衣爲其文之大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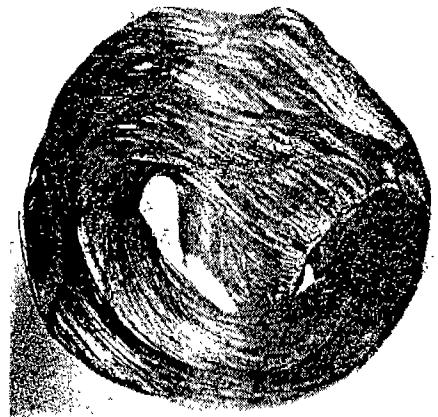
드리워 귀에 닿게 하고 그 아래에는 변류관 끈으로 써 진을 매단다. 가발 가하다의 뜻이니 옥을 비녀에 가하여 꾸밈을 한 것이다²⁴⁾라 있고 『釋名』에도 “왕후의 수식을 부라 한다. 부는 덮는 것이다. 머리를 덮는 것으로 부이라고도 한다. 여러가지 물건을 이용하여 장식을 다하는 것이다²⁵⁾”라 있다. 즉 부는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로 일반적으로 실이나 철사등을 지지대로 이용해 반원형으로 만든 것이고²⁶⁾ 계는 부에 가하는 비녀, 육가는 여섯가지의 각종 장식물임을 알 수 있다.(그림 4)

진발은 모전의 “진은 검은 머리이다²⁷⁾”와 구름같은 검은 머리라는 시의 내용상 가발을 사용하여 모양을 만든 머리모양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으며 피역시 집전에 “피는 수식이다. 머리를 엮어서 만든다²⁸⁾”라 있고 『釋名』에도 “발은 피다. 머리가 적은 사람은 피로 머리를 얻는다²⁹⁾”라 있어 머리를 엮어 만든 가체이다. 즉 부와 진발은 왕후 등이 예복에 가하는 가발이고 피는 일반 부녀자가 가하는 가발로 당시에는 자신의 머리 위에 남의 머리로 만든 가발을 머리에 올려 부풀린 형태로 만든 머리모양이 귀천의 구별없이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발에 대한 유물은 시대는 뒤지지만 장사 마왕퇴 1호 한묘에 남아 있어 그 형태를 짐작하게 한다.(그림 5)

한편 鬘(체), 진(瑱), 체(搯)는 정전의 “체는 일자이다. 진은 새이다. 체는 머리는 고르는 것이다

³⁰⁾”라는 설명으로 볼 때, 鬘(체)는 月子, 진(瑱)은 充耳, 체(搯)는 상아로 만든 족집게로 모두 버리에 가하여 장식하는 것이며 부계육가와 같이 귀족계급에서 사용한 수식으로 보인다.

기건과 여려는 모전에 “기건은 푸른색 여복이다³¹⁾”, “여려는 모수로 염색한 여자복식이다³²⁾”라 있고 정전에 “호의기건은 처자의 복식이다³³⁾”, “모수는 염색한 건이다³⁴⁾”, 집전에 “여려는 붉은색을 물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의복의 색깔을 이름한 것이다³⁵⁾”라 있어 기건과 여려는 서민 여성의 쓰개로서 기건은 푸른색, 여려는 붉은색으로 염색한 여성 건의 일종이고 여기에 호의(縞衣)를 입는



(그림 5) 假髮

출처 : 湖南省博物館 編, 『長沙馬王堆 一號漢墓』 下集, 文物出版社, 1973, p.168

24) 『시경집전』 上, p.122 “副 祭服之首飾 編髮爲之 笄 衡笄也 垂于副之兩旁 當耳 其下 以紃懸瑱 珈之言 加也 以玉加於笄而爲飾也”
 25) 『釋名』 卷第四 釋首飾 第十五 “王后首飾曰副 副覆也 以覆首亦言副貳也 兼用衆物成其飾也”
 26) 趙超·熊存瑞, 앞책, p.111
 27) 『毛詩正義』 鄘風 君子偕老, p.110 “鬢黑髮也”
 28) 『시경집전』 上, p.52 “被 首飾也 編髮爲之”
 29) 『釋名』 卷第四 釋首飾 第十五 “髮被也 髮少者得以被助其髮也”
 30) 『毛詩正義』 鄘風 君子偕老, p.110 “箋云 鬘髮也 瑱塞耳也 搯所以摘髮也”
 31) 『毛詩正義』 鄘風 出其東門, p.180 “蕤巾 蒼艾色女服也”
 32) 『毛詩正義』 鄘風 出其東門, p.180 “茹蕤茅蒐之染女服也”
 33) 『毛詩正義』 鄘風 出其東門, p.180 “箋云 縞衣蕤巾 所爲作者之妻服也”
 34) 『毛詩正義』 鄘風 出其東門, p.180 “箋云 茅蒐 染巾也”
 35) 『시경집전』 上, p.211 “茹蕤可以染絳 故以名衣服之色”

것이 서민여성의 차림새였다고 할 수 있다.

5. 패식(佩飾)

여자의 패식은 남자의 패식과 마찬가지로 의상위에 패옥을 달아 장식하기도 하였고 그 밖에 수건 등의 일상용품에 달아 편리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시경에 묘사된 여자의 패식은 아래와 같다.

舒而脱脫兮 無感我脫兮 <國風 召南 野有死疆>
 親結其綱 九十其儀 <國風 邶風 東山>
 巧笑之瑳 佩玉之儺 <國風 衛風 竹竿>
 將翱將翔 佩玉瓊琚/將翱將翔 佩玉將將 <國風 鄭風 有女同車>
 終朝采藍 不盈一擔 <小雅 魚藻之什 采芣>

이 중 패옥에 대한 묘사는 <衛風 竹竿>과 <鄭風 有女同車>의 2편이고 다른 시에서는 세(脫), 이(綱), 침(襜)이 묘사되어 있다. 먼저 세는 모전에 “세는 패건이다³⁶⁾”라 있어 허리에 찻던 수건임을 알 수 있는데 『禮記』內側篇에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길 때에는 모두 분세를 찻다³⁷⁾’는 기록이 있어 세가 당시 출가한 여성들이 집안일을 할 때 편리를 도모하도록 허리에 차던 것임을 확인시켜준다.

이(綱)는 毛傳에 “부인의 작은 띠다. 어머니가 딸에게 작은 띠를 채워주고 향주머니를 매주며 경계시킨다³⁸⁾”라 있어 딸이 시집갈 때 그 어머니가

딸을 경계하여 작은 띠에 향주머니를 매준 것이며 침은 모전에 “의의 앞을 가리는 것을 침이라 한다³⁹⁾”라 있어 옷을 가리는 것을 나타내는데 ‘하루종일 나물을 캐어도 침을 다 채우지 못한다⁴⁰⁾’라는 시의 내용상 치마 위에 두르는 서민여성의 앞치마의 일종으로 보인다. 이는 패식이라 할 수는 없지만 앞에 차는 것이므로 패식류에 포함시켰다.

III. 직물의 종류와 분석

『史記』에 ‘太古의 인간은 穴에 살고 羽衣나 獸皮, 樹皮를 이용해 風霜을 막았는데 神農의 시대가 되면서 麻布를 짜는 것을 알아 皮衣에서 布衣로 되었다. 皇帝의 시대가 되어 양잠이 발달해 衣裘冠冕의 풍속이 행해지며 堯舜시대에는 山·龍·藻·火 등의 문양이 장식되고 夏의 禹帝시대에 들어서 織文, 織貝, 織紵, 織, 紵 등의 고급직물이 각 지방에서의 공물로서 현상되었는데 일반서민은 皮衣, 葛衣를 상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⁴¹⁾ 이미 周나라 이전의 중국 직물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고 따라서 시경이 편찬된 西周에서 春秋時代까지의 직물에는 『史記』에 기록되어 있는 직물 외에 더욱 발달된 형태의 직물이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의 출토 직물을 볼 때 직물 조직학상의 중대한 비약기로서 단순한 조직으로 된 직물 이외에 복잡한 이중조직이 발견되고 있다.⁴²⁾

시경에 묘사되어 있는 피복재료에는 前考에서 살펴본 바 있는 모피류, 즉 裘의 재료로 사용된 羔나

36) 『毛詩正義』 召南 野有死疆, p.64 “脫 佩巾也”

37) 이민수 역해, 『예기』, 혜원출판사, p.312, “子事父母……左右佩用 左佩紛脫刀礪小綱金燧 右佩玕管遘大綱木燧……婦事舅姑……左佩紛脫刀礪小綱金燧 右佩箴管線纆……”

38) 『毛詩正義』 邶風 東山, p.295 “纆 婦人之褱也 母戒女施衿結脫”

39) 『毛詩正義』 小雅 魚藻之什 采芣, p.511-512 “衣蔽前謂之襜”

40) “終朝采藍 不盈一擔”

41) 杉本正年 外 2人, 『東西の服裝史』, 東京:衣生活研究會, 昭和 60年, p.23

윤양로, “고대 모직물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논문, 1994, p.87 재인용.

42) 沈蓮玉, “中國歷代紋織物組織結構織造工藝及花機的進展”, 中國紡織大學 紡織工程 博士學位論文, 1995, p.10.

狐, 豹皮, 狸, 熊羆 등과 錦, 褐, 縠, 麻, 絺, 紵, 綺, 葛 등이 있는데 본 장에서는 裘를 만드는 피복재료인 羔, 狐, 豹皮 등의 동물의 가죽은 제외하고 직기를 사용하여 실로 제작한 직물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견직물

『시경』〈國風 七月〉에는 견직물을 제작하는 과정이 있으며⁴³⁾ 錦, 縠, 綺, 紵 등의 다양한 견직물이 묘사되어 있다.

(1) 금(錦)

錦을 묘사한 시는 모두 4편으로 다음과 같다.

君子至止 錦衣狐裘	〈國風 秦風 終南〉
碩人其頤 衣錦褰衣	〈國風 衛風 碩人〉
衣錦褰衣 裳錦綉裳	〈國風 鄭風 半〉
斐兮斐兮 成是貝錦	〈小雅 節南山之什 巷伯〉

錦은 다양한 색상과 조직의 변화를 보여주는 일종의 정련된 견사로 잔 직물이다.⁴⁴⁾ 모전에도 貝錦에 대해 “패금은 금의 무늬이다”라 있어⁴⁵⁾ 錦이 문양이 있는 직물임을 알 수 있다.

금에 대해 『석명』에 “錦은 금이다. 쓰임이 중요하고 그 값이 금과 같아 그 글자가 帛과 金을 합한 것이다⁴⁶⁾”라 있고 『설문』에 “금은 색직문을 만든 것이다⁴⁷⁾”라 있어 錦이 色絲로 무늬를 잔 화려한



(그림 6) 雙人對舞鳥獸紋經錦文樣

출처 :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商務印書館, 1992, pp.100-101

직물로, 그 값이 금과 같을 정도의 고급직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은 문양을 나타내는 실의 종류에 따라 경사로 문양을 나타내는 경금과 위사로 문양을 나타내는 위금으로 나뉘는데 초기의 금의 종류는 모두 경금이다. 출토된 금 중에서 가장 이른 것은 요녕 조양 위관여 서주 조기묘에서 출토된 경2중 금과 그 다음으로 춘추시대 산둥 임치 낭가장 1호 동주묘 출토의 금이 있다.⁴⁸⁾ 출토물로 볼 때 경금은 전국시기가 흥성기임을 보여주는데 그 중 호북 강릉 마산 초묘에서 출토된 舞人動物錦은 대표적인 것이다.⁴⁹⁾

(그림 6)

(2) 추·곡(縐·縠)

추와 곡은 〈國風 鄘風 君子偕老〉에 묘사되어 있는데 추는 설번의 피복재료로, 곡은 모전에 展衣의 피복재료로 설명되어 있다.

『금취편』補에 “추는 곡이다. 버드나무와 같이 부드럽고 안개와 같이 가볍게 잔다⁵⁰⁾고 있고 『增韻』에 “추사를 곡이라 한다⁵¹⁾”라 있다. 일반적으로 위사에 가연한 실을, 경사에 정련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직조하여 경사방향으로 주름이 있는 얇은 직

43) “以伐遠邇 猗彼桑柔 七月鳴鴈 八月載績 載玄載黃 我朱孔陽 爲公子裳”

44) 趙豐, 『絲綢藝術史』, 浙江美術學院出版社, 1992, p.56

45) 『毛詩正義』, 小雅 節南山之什 巷伯, p.427 “貝錦 錦文也”

46) 『釋名』, 卷第四 釋綵帛 第十四 “錦金也 作之用功重於其價如金 故其制字帛與金也”

47) 『說文解字句讀』, 卷十四, p.289, “錦 斐色織文也”

48) 沈蓮玉, 앞논문, p.10.

49) 趙豐, 앞책, p.56

50) 『急就篇』, 卷二, “補曰 縐曰縠 訪絲而織之楊子綉”, pp.121-122

51) 趙豐, 앞책, p.35 재인용

물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고대에는 곡, 후세에는 추라 칭하였다.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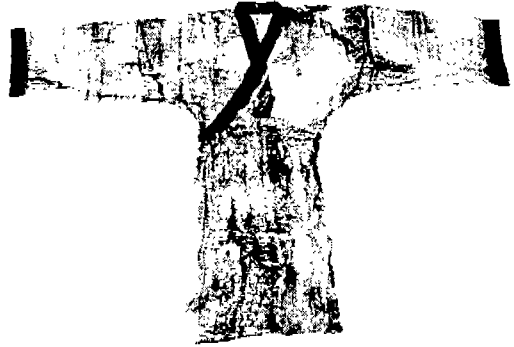
『석명』에 “곡은 속이다. 그 모양이 길고 평평한데 이같이 보이는 것이 조이다. 또 사곡이라 하는 것은 모래같은 모양을 취하여 이르는 것이다⁵³⁾”라 있고 『설문』에는 “곡은 세전이다. 어람에 세증이라 했다... 광아에 곡은 견이다. 천관 내사복 주에는 소사로 오늘날의 백전이다⁵⁴⁾”라 있으며 『釋繪』에는 “곡은 지금의 輕紗이며 얇기가 연가나 안개와 같다. 비록 사가 가볍지만 곡은 더욱 가볍다”고 있어⁵⁵⁾ 이를 종합할 때 곡은 좁쌀같은 주름이 있는 견직물로, 추와 같은 것이고 얇고 가벼운 직물임을 알 수 있다.

곡의 출토물 중 가장 이른 것은 태서촌 상대유지에서 출토된 것이 있는데, 이는 경위사에 강연사를 사용하고 이를 정련가공하여 경위사방향에 주름을 잡은 것이다.⁵⁶⁾ 또 조금 뒤 시기이기도 하지만 곡으로 만든 복식유물로 장사 마왕퇴 출토의 소사단의가 있다.(그림 7)

(3) 치(縹)

치에 대해서는 <國風 鄭風 縹衣>에 ‘縹衣之宜兮’가 언급되어 있는데, 『석명』에 “치는 앙금이다. 진홍의 검은 것을 앙금이라 하는데 바로 그 색을 말함이다⁵⁷⁾”라 있고 『설문』에 “치는 흑색의 백이다⁵⁸⁾”라

있어 치가 검은 색 견직물의 명칭임을 알 수 있다.



(그림 7) 素紗禪衣
출처 : 『長沙馬王堆 一號漢墓』 下集, p.63

(4) 소·호(素·縹)

소는 <國風 素冠>⁵⁹⁾ <唐風 揚之水>⁶⁰⁾, 호는 <國風 鄭風 出其東門>⁶¹⁾ 묘사되어 있다. 소와 호는 대개 정련하지 않은 섬세하고 치밀하게 짜여진 평직의 견직물⁶²⁾ 『설문』에 “호는 고운 색이다... 소위 오늘날의 소이다... 증의 조밀한 것을 호라 한다⁶³⁾”라 있고 『급취편』에 “소는 견직물 중 조밀한 것이다. 또 글을 쓸 때 소를 사용한다⁶⁴⁾, 그 補에 “소이에 증의 조밀한 것은 호이고 호의 거친 것이 소이다⁶⁵⁾”, 『석명』에 “소는 소박한 것이다. 직조하여 그대로 쓰며 꾸미지 않고 색도 사용하지

52) 趙豐, 앞책, p.35

53) 『釋名』 卷第四 釋絲帛 第十四 “穀粟也 其形足足而跋視之如粟也 又謂沙穀亦取跋跋如沙也”

54) 『說文解字句讀』 卷二十五, p.519 “穀 細縹也 御覽引作細縹也... 天官內司服注 素紗者 今之白縹也”

55) 심연옥, 『중국의 역대직물』, 한림원, 1998, p.88 재인용

56) 高漢玉·王任曹·陳云昌, “台西村 商代 遺址出土的紡織品”, 上海紡織科學研究院, 文物 79 (6), p.58

57) 『釋名』 卷第四 釋絲帛 第十四 “縹 宰也 泥之黑者曰宰 此色然也”

58) 『說文解字句讀』 卷二十五, p.521, “縹 帛黑色也”

59) “庶見素衣兮”

60) “素衣朱襪/ 素衣朱縹”

61) ‘縹衣蒸巾’

62) 趙豐, 앞책, p.34 심연옥, 앞책, p.91

63) 『說文解字句讀』 卷二十五, p.519, “縹 鮮色也... 今之所謂素者... 縹之精者曰縹”

64) 『急就篇』 卷二, “素謂縹之精白者 即所用寫書之素也”, p.123

65) 『急就篇』 卷二 “補曰 小爾雅 縹之精者曰縹 縹之蠶者曰素”, p.123

않으므로 본래 색 그대로이다”⁶⁶⁾, 『玉篇』에 “소는 정련하지 않은 견이다. 그 주에 정련하지 않은 견을 소라 한다”, 『禮記·王制』에는 “흰색의 정련하지 않은 견을 호라 한다”라 있어⁶⁷⁾ 이를 종합할 때, 호나 소 모두 정련하지 않은 견직물로, 호가 소보다 좀 더 세밀한 직물이고 색도 더 고운 흰색이며 소는 염색하지 않은 소색 그대로의 직물이라고 생각된다.

(5) 수(繡)

수는 직물 표면에 장식을 위해 가하는 것으로, 직물로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 고대에 수가 특별히 애용되었고 출토에도 많아 중국에서는 직물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⁸⁾ 『시경』에도 그 예가 많은데⁶⁹⁾ 옷깃에 수를 놓거나 의나 상에 가한 章紋의 수를 묘사하고 있다.

『주례』에 “오채가 갖추어진 것을 수라 한다”⁷⁰⁾라 있고 『급취편』에 “수는 색실로 바느질하여 무늬를 나타낸 것이다”⁷¹⁾라 있어 수가 여러 가지 색사로 바느질하여 무늬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수의 출토유물로는 가장 이른 것이 은대 묘에서 발견된 자수가 있으며⁷²⁾ 서주시기의 것으로 험서성 보계시에서 발굴한 2좌의 서주 전기의 노예순장묘 출토의 사슬수 기법으로 놓여진 자수의 인흔(印痕)



(그림 8)西周 사슬수 印痕(陝西 寶雞 茹家庄 尹伯墓 출토 출처 : 黃能馥·陳娟娟 編著, 『中華服飾藝術源流』, 高等教育出版社, 1994, p.47

이 있다. 주대에는 자수가 상당히 발전하여 당시에는 수(繡)라고 부르지 않고 치(黹)라고 불렀다고 하는데⁷³⁾, 서주시기의 유물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사용된 수의 기법은 사슬수와 평수가 대부분이다.⁷⁴⁾ (그림 8)

2. 모직물

동물의 털을 실로 사용하여 제작한 직물을 모직물이라 하는데 『시경』에는 모직물로 갈(褐)이 묘사되어 있다.

66) 『석명』 卷四 “素 質朴素也 已織則供用不復加功飾也 又物不加飾皆日之爲素 此色然也”, p.69

67) 趙豐, 앞책, p.34 재인용

『玉篇』“素, 生帛也; 鄭注集記曰 素, 白帛也, 然則生帛曰素”

『禮記·王制』 正義 “白色生帛曰縞”

68) 夏鼐, “我國古代蠶, 桑, 絲, 綢的歷史”, 考古 72 (2), p.14

69) <秦風 終南> “敝衣綳裳”, <豳風 九罭> “衰衣綳裳”, <小雅 魚藻之什 采芣> “玄衮及黼”, <唐風 揚之水> “素衣朱繡”

70)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p.983 재인용

『周禮』 “五采備爲之繡”

71) 『急就篇』 卷二 “繡刺綵爲文也”, p.116

72) “안양 은묘 銅戈 위의 細網”, 考古學報 51 (5), 1950

夏鼐, “我國古代蠶, 桑, 絲, 綢的歷史”, 考古 72 (2), p.13 재인용

73) 李也貞 外, “有關西周絲織和刺綉的重要發現”, 文物 76 (4), pp.61-62

74) 심연옥, 앞책, p.78

(1) 갈(褐)

褐은 <豳風 七月>에 묘사되어 있다.⁷⁵⁾

고대에는 고운 평직의 모직물을 계(麤)라 하고 거친 모직물을 갈이라 하는데⁷⁶⁾ 정전에 “갈은 모로 만든 포이다⁷⁷⁾”라 있고 『급취편』에 “갈은 모로 잔 옷으로 추의라고도 한다⁷⁸⁾, 그 補에 “맹자가 자식에게 갈옷을 입히라 했다 그 주에 갈은 모직물로 된 포로 천한 자의 옷이다⁷⁹⁾”라 있어 같이 모섬유로 직조한 모직물이고 이것으로 만든 옷을 갈이라고도 부르며 주로 하급인의 피복재료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설문』에 “褐은 糞를 섞은 것이다”라 있어⁸⁰⁾ 褐을 모시로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흙을 원료로 한 糞과 혼동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江永은 고대 사료 중에 보이는 “毛褐”, “短褐”, “被褐” 등은 하등인의 의복을 표현한 것으로 고대에 가난한 사람은 褐衣를 착용하였는데 갈은 거친 麻와 獸毛를 혼방직성한 것으로 옷감이 뻣뻣하고 무거우며 그다지 따뜻하지 않고 가는 털이 있어 외관이 좋지 않았다고 하여⁸¹⁾ 갈을 麻와 獸毛와의 혼방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3. 마·갈직물

『시경』에 묘사되어 있는 식물성 섬유에는 마와 갈로 제직한 직물이 있다.

(1) 마(麻)

麻는 <陳風 東門之枌>과 <曹風 蜉蝣>에 묘사되어 있다.⁸²⁾

『설문』에 “마는 시이다⁸³⁾”라 있고 『급취편』에 “마는 대마와 호마를 말한다⁸⁴⁾, 그 補에 “마에는 저와 시 두가지가 있다⁸⁵⁾”고 있는데 시는 대마의 응수(雄樹)를 말하고 저마는 자마(雌麻)를 말한다. 시마로는 비교적 고운 포를 짜고 저마는 섬유가 거칠고 색이 검어서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상복 등의 거친 포를 짜는데 쓰인다.⁸⁶⁾

마 즐기로부터 섬유를 얻는 방법은 “東門之池 可以漚麻”라는 묘사로부터 알 수 있는데 즉, 마를 연못에 담가 발효시켜 섬유를 얻는 것이다. 대개 가을에 수확한 마는 잎을 제거한 후 연못에 담근다. 연못의 물은 흐르지 않으므로 태양을 쬐고 수은이 올라가면 미생물이 쉽게 번식하여 마섬유의 탈효(脫朮)를 가속화시킨다. 탈효된 대마는 부녀자들이 고질량의 마섬유를 뽑기 수월하게 되는 것이다.⁸⁷⁾

정전에 “마를 짜는 것은 부인의 일이다⁸⁸⁾”라 있

75) “無衣無褐 何以卒歲”

76) 심연옥, 앞책, p.97

77) 『毛詩正義』豳風 七月, p.279 “箋云 褐 毛布也”

78) 『急就篇』卷2 p.150 “褐織毛爲衣也 或曰麤衣也”

79) 『急就篇』卷二 p.150 “補曰 …孟子云許子衣褐 注褐毛布 賤者之服也”

80) 『說文解字句讀』卷十五, p.313, “褐 編糞也”

81) 江水, 『中華服飾文化』, 台北: 山西人民出版社, 1991, p.99

윤양로, 앞논문, p.87 재인용

82) <國風 陳風 東門之枌> “東門之池 可以漚麻/ 不績其麻 市也婆娑”, <國風 曹風 蜉蝣> “蜉蝣掘閱 麻衣如雪”

83) 『說文解字句讀』卷十四, p. 269, “麻糞也”

84) 『急就篇』卷二, p.131, “麻謂大麻及胡麻也”

85) 『急就篇』卷二, p.131-132, “補曰 麻有苴(저)糞二種 苴麻有糞實也”

86) 심연옥, 앞책, p.86

87) 高漢玉·王任曹·陳云昌, 앞논문, 문물 79(6), p.45

88) 『毛詩正義』陳風 東門之枌, p.250 “箋云 績麻者婦人之事也”

고 『설문』에도 “부녀자가 집안에서 공을 들인다. 고공기(考工記)에도 마섬유를 짜서 완성하는 것은 부녀자의 공이다⁸⁹⁾”라 있어 당시 마를 제직하여 ‘마의 여설(麻衣如蠶)’과 같이 회계 표백하는 일은 모두 부녀자의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출토유물로는 하북성 태서촌 상대 중기 유적과 하남성 안양 은허 부호(婦好)묘 상대 말기 유적에서 발견된 대마포와 복건성 무이산 상말 주초의 선관묘에서 발견된 대마포⁹⁰⁾, 경양 고가보 주대 조기의 묘에서 발견된 비교적 촘촘한 평직의 마포조각 등이 있다.⁹¹⁾

(2) 갈·치·격(葛·絺·縠)

갈, 치와 격은 〈周南 葛覃〉에 묘사되어 있다.⁹²⁾

같은 칩의 줄기로 만든 섬유를 말하는 것으로⁹³⁾ 『周禮』에는 갈직물 제직에 필요한 원료와 갈섬유의 수집을 전문으로 관리하던 관공업인 ‘掌葛’이 설치되어 있어 당시 갈섬유가 주요한 방직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⁹⁴⁾

모전에 “치는 조밀한 것이고 격은 거친 것이다⁹⁵⁾”라 있고 『설문』에 “치는 세갈이고 격은 조갈이다⁹⁶⁾”라 있으며 시의 내용에 칩잎을 잘라다가 짜서 치와 격을 짠다고 하였으므로⁹⁷⁾ 치와 격은 모두 갈로 만든 섬유이며 그 중 조밀한 것은 치, 거친 것은 격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갈직물은 한대 이후 저·마직물의 사용이 늘면서 사용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한다.⁹⁸⁾

IV. 맺는말

본 논문은 중국 周代의 민요를 모아 편찬된 『시경』에 묘사된 여자복식과 직물을 대상으로 『시경』의 역대 주와 각종 문헌자료, 유물자료 등을 참고로 주대 귀족과 일반서민의 복식문화 일부를 구현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여자복식을 정리하면,

1. 예복으로는 적의와 전의가 묘사되어 있다. 적의는 제복으로 평문을 장식한 의상연의의 긴 복식이고 전의는 后妃의 六服 아래의 등급에 해당하는 예복으로 흰색의 고운 주름이 잡혀있는 곡이라는 직물로 만든다.
2. 여자의 衣裝은 상의하상의 위와 아래가 분리된 형태로 이는 중국에 심의가 등장하기 이전의 전통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시경』의 의상에 대한 묘사로부터 당시 上衣에는 正色, 下裳에는 間色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경의·경상·설번은 모두 속에 입은 화려한 문채, 보통은 금(錦)으로 만든 복식 위에 입는 것으로 화려함이 겹으로 너무 드러나지 않도록 입는 복식이다. 그 재료는 경의와 경상은 주름잡힌 얇은 견직물인 곡으로, 설번 역시 곡과 유사한 직물인 추와 치로 만들어 서로 유사한 목적의 옷임을 알 수 있고 그 착용자는 경의와 경상은 귀족계급의 여자나 서민이 혼례복을 입을 때, 설번은 후비 등이 예복을 입을 때 착용하는 복식이다.

89) 『說文解字句讀』 卷十四, p.269, “婦功必在屋下也 考工記 治絲麻以成之 謂之婦功”

90) 심연옥, 앞책, p.74

91) 葛今, “涇陽 高家堡 早周墓葬 發掘記”, 文物 72(7), p.5

92) “葛之覃兮 施于中谷/維葉莫莫 是刈是漚/爲絺爲縠 服之無辜女”

93) 『漢韓大字典』, p.1066

94) 심연옥, 앞책, p.85

95) 『毛詩正義』 周南 葛覃, p.29, “精曰絺 麤曰縠”

96) 『說文解字句讀』 卷二十五, p.527, “絺 細葛也 縠 粗葛也”

97) “是刈是漚 爲絺爲縠”

98) 심연옥, 앞책, p.86

4. 여자의 수식은 가발에 속하는 부(副), 진발(鬢髮), 피(被), 체(髻)가 있고 머리에 가하는 장식물로 계(笄), 육가(六珈), 체(搯)가 있으며, 서민 여성의 쓰개류로는 기건(蓆巾)과 여려(茹蓆)가 있다.
5. 여자의 패식 역시 남자와 같이 장식적 패식(佩玉)과 실용적 패식으로 나눌 수 있다. 다만 남자의 송곳, 깎지, 족집게와 같은 실용적 패식과 달리 여자는 수건인 세(帨)와 리(縞)를 차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 그 내용에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시경』에 묘사된 직물은 크게 견직물, 모직물, 마·갈직물로 분류되었다.

1. 견직물에는 금(錦), 곡(黻)과 추(縗), 치(緇), 호(縞)와 소(素), 수(繡)가 있다. 금은 색사로 무늬를 낸 직물로 당시의 금은 경사로 무늬를 낸 경

금직물이다. 곡과 추는 경사나 위사에 강연사를 사용해 주름을 만든 얇은 직물이다. 치는 검은색의 평견직물을 말하고 호와 소는 모두 정련하지 않은 흰색의 평견직물로서 소가 호보다 거칠다. 수는 직물이라기 보다는 직물 위에 가하는 장식으로 당시 옷깃 등에 많이 사용하였고 평수와 사슬수가 이용되었다.

2. 모직물로는 갈(褐)이 있는데 이는 평직물로 비교적 거칠어 귀족계급보다는 서민계급에서 주로 사용한 직물이다.
3. 마직물에는 시마와 저마가 있는데 시마는 비교적 고운 마포이고 저마는 거칠고 색이 검어서 상복 등에만 이용된다. 출토유물에는 대마포와 저마포가 보인다. 갈직물은 취섬유로 짠 직물로 갈직물 중 고운 것을 치라 하고 거친 것을 격이라 한다.